

책의 구성이 정말 신기해서 흥미롭게 읽었다. 일반적인 소설 형식과는 다르게 르포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새롭고 재미있었다. 작가가 기자 출신이라 그런지 취재 형식이 소설에 잘 녹아 들어 있었다. 한 인물의 삶을 살피면서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정말 신선하고 매력적이었다. 또한 과학에 대한 내용도 매우 흥미로웠다. 진화론, 생물학, 분류학 등 다양한 과학 분야에 대한 조사가 흥미로웠고,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함께 듣는 것도 좋았다.

또한 과학에 대한 내 통념을 깨트려 주었다. 과학과 수학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항상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학과 과학은 고정된 공식이나 정답이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능성을 탐구하는 학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전에는 지동설을 믿고 있었지만 결국 천동설이 맞았다는 것처럼, 학문은 항상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책에는 공룡과 새가 같이 분류되고, 심지어는 버섯이 동물과 더 가까운 분류에 속한다는 사실도 담겨있다. 이런 다양한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다.

소설의 주요 스토리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생물학자의 생애를 따라가는데, 그의 모순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젊었을 때는 인종차별 철폐를 지지하면서 나중에는 우생학을 주장하는 등, 그의 변화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연구한 물고기, 어류가 분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밝혀내는 내용은 정말 놀라웠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다양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우리는 자신이 친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나도 경계심을 갖고, 다른 것들을 뭉뚱그려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는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챔피언과 우리의 대화에서 나오는 내용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작가가 아버지의 말을 틀렸다고 하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다. 아버지의 말처럼 지구의 시선에서 본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 우리는 다양한 존재이다. 결국 작가는 해답을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찾는데, 이 부분이 정말 와닿았다. 이런 다양한 시각과 방법이 우리를 발전시키고 진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